

[한국도시설계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 정동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lanning Factors for the Street Adjacent to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City

- Focused on Jeongdong Road

박종한* · 김다인** · 김도년***

Park, Jong Han · Kim, Da In · Kim, Do Nyun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역사적 가치는 단순히 문화자원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역사의 모습과 양식을 어떠한 맥락으로 이어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문화자원을 파괴하거나 훼손시켜왔다. 그 결과 도시는 고유의 역사문화의 파괴와 더불어 도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¹⁾

한편, 가로는 도시 내에서 중요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그 영향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가로경관은 특히 역사지구 내 경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역사도심이 1394년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래 6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수도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고도로서의 지형과 기능, 상징성이 타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화되어 다른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해방이후 서울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로 인해 기존의 문화자원이 방치되거나 훼손된 가치 있는 장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이 인접한 가로 중 정동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동길은 근대 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덕수궁을 비롯하여 주요 외국공관이 위치한다. 특히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건고 싶은 녹화거리 사업’,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역사문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성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정동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의 주요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심의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의 계획요소 정립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8CTAP-C110489-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서울시 2012, 『서울2030플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p.78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그림 1> 대상가로 현황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그림 2> 대상가로 현황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1) 연구의 방법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의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도시의 가로, 걷기 좋은 길, 가로계획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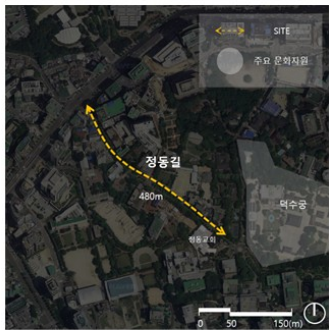
둘째, 서울 정동길에 대한 물리적 환경 및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가로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의 특성, 만족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셋째, 설문조사와 문헌·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정동길이 아닌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다른 가로인 ‘북촌로 5길’에 대한 계획요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동길의 경우에서 각각의 계획요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 정동길이 갖는 좋은 계획요소들을 시사점으로 삼아 서울 도심 내 다른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들에도 정동길과 같은 좋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정동길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에서 근대 역사의 시작점으로 덕수궁을 비롯하여, 근대시기의 외국공관들의 업무시설과 종교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정동길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정동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크고 작은 언덕들로 인해 부지 간 또는 부지 내부에 다양한 레벨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동길은 인사동길, 명동의 중앙길, 인사동의 가로수길 등의 경우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도로변에 위치하는 반면, 정동길 변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상업시설과 대사관/문화/교육/종교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규모 업무·주거시설은 블록 외부 대로변에 형성되어 있다.

가로명	정동길
용도 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 길이	약 480m

<그림 3> 대상지 개요

3) 내용적 범위

이론적고찰을 통해 ‘역사문화자원’, ‘도시의 가로’, ‘걷기 좋은 길’을 사전적인 의미로 알아보고, 추가로 ‘가로계획요소’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계획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정동길의 현황을 파악하고 용도지역을 포함한 법·제도상 어떠한 위계를 두고 계획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가로의 보행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각의 보행환경에 대한 측정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설문조사 또한 대상가로의 방문하는 보행자의 중요도 및 만족도측정을 위해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연혁을 살펴보면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확대되면서 그 범위는 문화재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양식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도 유사한 맥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 환경보존에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와 역사문화유산을 포함한 큰 범주로서 도시의 문화양식, 인물, 자연자원, 생활풍습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도시의 가로

먼저, 가로(Street)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알아보면 “가로는 도시공간의 일부로서 걷는다는 동적인 형태와 거리 양편의 복합화된 실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가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거리와 건물에 의해 형성된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²⁾ 이렇듯 도시의 가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거리와 주변의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 3차원적 공간으로써 단순한 통과수단의 기능을 넘어 주변 건축물로의 접근로, 체험의 장소, 도시 경관을 드러내는 장소, 도시의 성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외부로 이어주는 매개체공간으로서 도시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공간이다.³⁾

2.3. 걷기 좋은 길

걷기 좋은 길은 보행으로 연결된 밀도 높은 도시 공간 내에서 경제활동 증진, 환경 부담 저감,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범죄 예방 등의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또한, 사람들이 도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가로를 걸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 나아가 보행위주의 도시는 탄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걷기 좋은 길은 다양한 활동 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정보의 교환 장소, 접촉의 장소, 문화공유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걷기 좋은 길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자 개방된 장소로서 도시민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⁴⁾

2.4. 가로계획요소

본 연구에서 가로의 계획요소는 ‘이성창 2006,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와 ‘이창엽 2017, 사회적 공간으로서 근린생활가로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에 따라 가로계획요소를 <표 1>과 같이 물리적 환경에 따라 3가지 구분으로 나누었고, 3장 대상지 분석에서 조사하게 될 설문조사와 같이 수치화를 통해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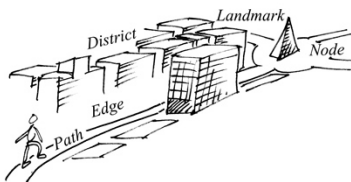
<표 1>과 같이 가로계획의 물리적 환경요소인 대지, 가로, 건물 중 사유지를 제외한 대지 및 가로는 공적공간으로, 사유된 건물에 관련된 사항은 사적공간으로 계획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1962년 문화재보호법 공포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plenote1&logNo=22023784220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그림 5> 도시이미지 5가지 요소

(*출처 :

<http://designforwalking.com/are-paths-the-primary-component-of-landscapes/>

<표 1> 가로계획요소

구분	계획요소
물리적 환경	대지
	가
	건물
물리적 환경	대지
	가
	건물
물리적 환경	대지
	가
	건물

2) 조현세 외 4인 2001, 『지구교통환경개선과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가로환경계획매뉴얼』, 청문각, p.4.
3) 강홍빈 1985, 『도시계획의 이상과 현실』 공간, 2월호, p.64.
4) 김도년 2017, 『한국은행 인덕길 만들기 - 한국은행 주변 명소화를 위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3. 정동길 현황

<표 2> 정동길 주변
역사문화자원 현황

명칭	위치
 구리시아공사관	정동125-1
 덕수궁	정동1-23
 정동제일교회	정동34
 배재학당	정동34-5
 중명전	정동1-11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정동32

3.1. 물리적 현황

정동길 주변으로는 우리나라의 개화기 외래문물을 받아들인 최초의 장소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구 러시아공사관, 정동제일교회, 덕수궁, 중명전, 배재학당 등 장소의 특징이 될 만한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인 정동길은 정동사거리에서 경향신문사까지 480m 구간의 도로로 주변의 상업, 문화, 종교, 교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있다.

또한, 정동길에서는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적인 도심 내 가로와 달리 일부는 돌담길에 의해 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장소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른 가로와는 차별화된 정동길만의 매력적인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쾌적한 보행환경과 더불어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가로에 대한 계획요소가 나타난다. 정동길의 진입부는 차량의 진입이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블라드가 설치되어있으며,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조명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근대건축물이 그려져있는 타일과 점자블럭, 노거수 조명경관 연출설계, 노거수 주변 환경시설물 설계 등 다양한 계획요소들이 표현되어있다.



<그림 6>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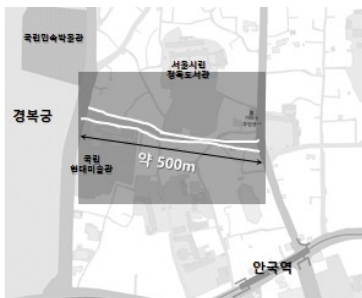
4. 정동길 분석

4.1. 분석의 틀

정동길은 ‘중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도시디자인 조례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른 가로에 비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들어서 있으며, 지하철역(시청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기에 대상지로 정동길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동길만이 가지고 있는 보행환경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도심 내 정동길과 가장 유사한 가로의 길이(약 500m)와 주변 건축물의 특성 및 높이를 포함하여 서울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자원인 경복궁과 인접하여 있는 ‘북촌로 5길’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가로계획요소들은 ‘이성창 2006,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와 ‘이창엽 2017, 사회적 공간으로서 근린생활가로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의 계획요소를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보행요소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으며 정동길과 북촌로 5길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91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시행하였다.



<그림 7> 북촌로 5길 현황

4.2. 분석결과

〈표 4〉 북촌로 5길의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계획요소	중요도(1-12)	유무
북촌로 5길	안내표지판	1	○
	표석(머릿말)	5	○
	차로와 보도의 단차	3	
	벤치	8	○
	휴지통	7	
	오픈스페이스	4	○
	가로수	2	
	바닥패턴	9	
	플랜터(화분)	11	
	보호수 조명	10	
	볼라드	12	○
	가로등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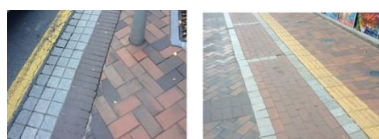
4.2.1 중요도 분석

중요도 측정 항목은 〈표 3〉과 〈표 4〉와 같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에는 아래와 같이 중요도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특징적인 보행환경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¹⁾

〈표 3〉 정동길의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명칭	구분	계획요소	중요도(1-12)	유무
정동길	가로	안내표지판	1	○
	가로	표석(머릿말)	9	○
	가로	차로와 보도의 단차	3	○
	가로	벤치	8	○
	가로	휴지통	10	
	대지	오픈스페이스	4	○
	가로	가로수	2	○
	대지	바닥패턴	6	○
	가로	플랜터(화분)	11	○
	가로	보호수 조명	7	
	가로	볼라드	12	○
	가로	가로등	5	○

정동길의 다양한 보행환경요소



〈그림 8〉 다양한 바닥패턴



〈그림 9〉 향아리를 활용한 플랜터



〈그림 10〉 볼라드와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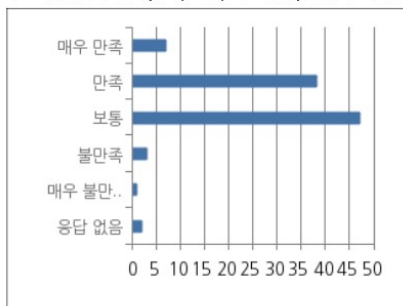
〈그림 11〉 근대건축물 타일

중요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정동길과 북촌로 5길 공통으로 1~3위를 차지한 ‘안내표지판’, ‘가로수’, ‘차로와 보도의 단차’ 이 3가지 계획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람들이 정동길을 보행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2.2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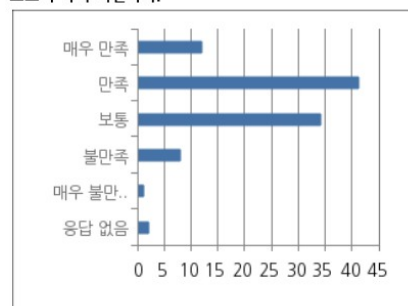
만족도 측정 항목은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와 같다. 가로시설물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7%, 만족 38%, 보통 47%, 불만족 3%, 매우 불만족 1%, 응답 없음 2%로 분석되었다. 보도의 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12%, 만족 41%, 보통 34%, 불

가로시설물들의 위치(벤치, 화분, 가로등 등)가 만족스럽다.



〈그림 12〉 가로시설물 위치에 대한 만족도

보도의 폭이 적절하다.



〈그림 13〉 보도폭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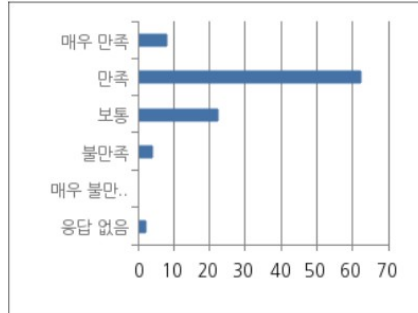
만족 8%, 매우 불만족 1%, 응답 없음 2%로 분석되었다. 식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8%, 만족 63%, 보통 22%, 불만족 4%, 매우불만족 0%, 응답 없음 2%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12%, 만족 58%, 보통 25%, 불만족 2%, 매우 불

1) 성인 20대~50대 91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함.

만족 0%, 응답 없음 2%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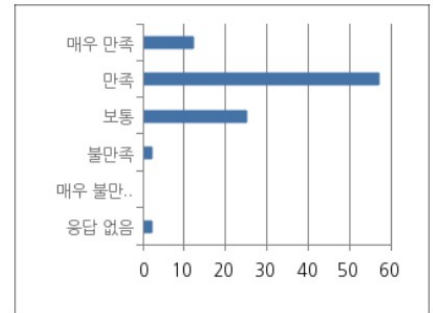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정동길에 대해 가로시설물들의 위치, 보도폭, 식재, 접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가로수의 크기/수목 등이 적절하다.



(그림 14) 식재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림 15) 대중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되어있는 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가로에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를 정동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인 경복궁과 인접하여 있는 북촌한옥 마을 내 '북촌로 5길' 과 비교를 통해 정동길만 가지고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요소 도출과정에서 정동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동길이 속해있는 중구는 자체적으로 도시환경개선과 도시이미지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서울중구 디자인가이드라인' 이라는 세부지침을 통하여 색채 및 그래픽 패턴뿐만 아니라 간판디자인, 각종 가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상가로 내에 계획요소에 대한 무분별한 배치를 방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북촌로 5길' 과의 계획요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도출하여 정동길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화된 지표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동길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요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안내표지판', '가로수', '차로와 보도의 단차' 이 3가지 계획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람들이 정동길을 보행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향후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인접한 가로를 대상으로는 도출된 계획요소를 중점적으로 정동길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하나의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통해 단순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본보고서 1, 2015.
2.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본보고서 2, 2015.
3. 성우철 외, 『서울, 정동지역의 도시구조와 외부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9(1), 2013.
4. 서정철 외, 『정동 내 도시적 경계영역의 변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센터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4(1), 2004.
5. 박상희 외, 『정동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 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3(1), 2003.
6. 강은진 외, 『특화가로의 이용 후 평가(P.O.E.)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4.
 7. 강은진 외, 『역사·문화를 고려한 특화가로의 이용 후 평가(P.O.E.)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4, 2014.
 8. 이미화, 『역사지구의 가로경관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9. 이천복 외, 『역사문화환경의 장소성 보존기법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9권 제4호, 2008.
 10. 박준현 외,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11. 전강은 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12. 안수미 외, 『역사·문화가로의 구성요소 및 색채특성 분석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2.
 13. 이승필 외,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7권 제2호, 2006.
 14. 유아근, 『가로에 접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7